



시중은행장들이 다양한 소통 경영과 자사주 매입 등 분주한 봄날을 보내고 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맨 왼쪽)이 3월29일 서울 부암동 식당에서 본부 신규 전입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자사주 매입·소통 경영까지... “바쁘다 바빠”

우리·하나, 자사주 매입 출신수범 농협은행장, 직원과 식사자리 마련 신한은행장은 전국 현장 방문 계획

봄이 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이 자사주 매입, 소통 경영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사주 매입. 금융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부진하다는 평가에 맞서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출신수범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가 폭락을 지적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런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3월25일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매수했다. 손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2월13일 신규 상장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매수를 통해 손 회장은 총 4만8127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성규 신임 KEB하나은행장도 취임 직후인 3월22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4000주를 매입했다.

영업 현장서는 연초 시무식에서 강조하던 ‘소통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장의 업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영철학과 사업 구상을 내부 구성원에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3월29일 서울 부암동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은



손태승 회장 지성규 은행장 진옥동 은행장

행장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자리에는 ‘첫 본부 근무의 설렘’을 테마로 2019년 중앙본부 신규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행장은 “CEO로서 다양한 직원들과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로 취임한 신임 은행장 역시 조직 안정을 위해 소통 활동에 많은 공을

들고 있다. 진옥동 신임 신한은행장은 이달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을 찾아가 직원과 고객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일본에서 18년을 근무한 이력 때문에 “국내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성규 신임 KEB하나은행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사내 소통 강화와 상호 배려를 강조했다. 특히 지 은행장은 “하나은행, 외환은행 출신간의 정서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정서적 통합은 통합은행 2대 은행장인 제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라고 향후 양측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소통 경영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jjay@donga.com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위비뱅크’ 개편

우리은행이 모바일뱅킹 서비스 ‘위비뱅크’ (사진)를 개편했다. 간결한 화면 구성과 쉬운 어휘 사용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용이 많은 송금, 환전 거래에 자동 로그인 기능을 도입했고, 조작 단계를 축소해 거래 시간을 단축했다. 환전 거래에 과거 내역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외화 수령이 가능한 인근 영업점 알림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하반기에는 오픈API를 활용한 개방형 뱅킹서비스인 오픈 뱅킹을 도입한다. 제휴기업과 공동으로 금융데이터에 기초한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카드 ‘렛츠 엘 터치’ 이벤트 진행

롯데카드가 ‘렛츠 엘 터치’(Let's L TOUCH H) 4월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달력에서 알파벳 L이 그려지는 매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에 롯데카드 라이프 앱 터치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다같이 Let's L 네이퍼페이’ 혜택을 터치 완료하면 네이퍼페이를 통해 4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1일 1회, 총 2회 할인해준다. 또 마지막 주 화~금요일에 ‘다같이 Let's L 롯데닷컴’ 혜택을 터치완료하면 롯데닷컴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1일 1회, 총 2회 할인해준다.

키움 vs 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2파전’

키움뱅크, 주주·자본조달력 앞서 토스뱅크, 소상공인 등 틈새 겨냥

제3인터넷전문은행 지정을 위한 예비인가 심사가 시작되면서 새 인터넷전문은행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서류 미비로 유효 경쟁자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

다. 사실상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KEB하나은행, SK그룹의 SK텔레콤, SK증권, 11번가,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등이 지분 출자에 나선다. 이밖에 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성장전략M&A2호 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BIAI&블록체인펀드, 한

국정보통신, 현대BS&C, 아프리카TV, 테모데이, 에프엔가이드, SCI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윈투씨엠, 투게더앤스, 바로고 등도 참여했다. 정보기술업체인 다우기술의 혁신성에 KEB하나은행, SK텔레콤, 세븐일레븐 등 금융, 통신, 유통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 SK그룹, 롯데그룹 등 대형 기업의 참여로 안정적인 주주 구성과 자본조달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등 틈새고객에 맞춘 글로벌 챌린저뱅크를 내세우고 있다. 간편송금 앱 토스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고 한화투자증권, 굿위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마켓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램(무신사) 등이 참여했다. 핀테크 기술을 앞세운 만큼 혁신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이탈해 자본조달력에서 일부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대 2개 사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1개 인터넷전문은행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예비인가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에 공개한다.

정정욱 기자

건강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허리건인, 벌어진골반교정, 요가스트레칭, 복부



2019년 최신모델 한국 일본 동시 판매!

일본 라쿠텐 1위 20만대 판매!

매일 15분씩 4주 스트레칭 다이어트!



온열과 에어백으로 남녀노소 1일 15분! 부위별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7종의 프로그램

체형교정, 발란스, 스트레칭 인필라 에어피티 Air-PT

허리모드

허리를 균일하게 비틀고 펴면서 견인



골반모드

온열과 에어백으로 조우면서 부드럽게 들어진 골반교정



좌석모드

누워서도 앉아서도 편안하게 죽은 엉덩이 살리기



이럴때 좋습니다!

- 직장인허리결림
- 운동후 근육마사지
- 가사일많은 주부
- 운전근로자
- 작업량이 많은분
- 운동량이 많은분

제품문의 : 1899-1898
A/S 100% 보장 카드결제가능(2~5개월 무이자)
전국취급점 문의